

<서평>

The Translator Stud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pecial Issue: Evaluation and Translation, 6:2***

(C. Maier, 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0)

김성희*

1. 서언

주옥같은 한국문학 작품이 많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을 한 번도 타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작품의 가치를 충분히 나타내 줄 번역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만큼 한 작품을 다른 언어와 문화로 번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하나의 재창조 작업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번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번역 작품의 가치(value)와 질(quality)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의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기술적으로 좀더 전문화 되어야 하는데, 현대 사회와 문화에 발 맞춰가는 번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공헌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바로 마이어(C. Maier)가 편집한 저널, *The Translator: Evaluation and Translation*이다.

이 저널은 모두 8편의 논문과, 한편의 아일랜드 고전문학에 대한 논평, 그리고 7편의 최근 번역 작품을 서평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처음의 8편의 논문은, 이 저널의 제목이(*Evaluation and Translation*) 시사하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들로부터 번역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들과 정의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준다. 두 번째, 고전문학에 대한 논평은 아일랜드 한 고전문학의 번역자가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영국의 독자들을 위해 번역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문학작품 번역의 문제점들과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7편의 번역 작품 서평은 현재 번역되어진 중요한 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예로 제시하며 논의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논문들이 번역의 질과, 평가와, 가치에 관하여 어떻게 논의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 이화여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한세대학교, 평택대학교 강사, 신약학.

2. 내용 분석

2.1. 번역의 질의 평가: 어디서 이론과 실체가 만날 수 있을까?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Where Can Theory and Practice Meet? by S. Lauscher)

라우셔(S. Lauscher)는 이 논문에서, 세계화(global)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번역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높이게 되었으나 번역의 질의 평가(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이후로 TQA)에 대한 학문적인 노력은 주로 무시되어 왔다는 화두로 시작한다. 라우셔는 번역의 우수성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번역의 질의 평가(TQA)에 관한 현재 존재하는 모델들을 관찰하고,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면서 번역의 질에 대한 번역 과정의 영향을 설명한다. 또한 평가 과정들을 설명하고 규범적인 판단(prescriptive judgement)의 가능성을 위한 함축적인 의미들을 논한다.

라우셔에 의하면, 번역의 우수성의 평가를 위해 번역학자들은 생산적이고 상호주체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는 모델들을 번역의 과학적인 이론들에 근거하여 발전시키고자 했다. 라우셔는 이러한 모델들 중, 원문과의 동등성을 기본으로 하는 접근들(equivalence-based approaches)과 기능적인 접근들(functional approaches)을 소개하고 이 평가 모델들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동등성(equivalence)을 기본으로 하는 접근법은 초기 번역이론에서 매우 중심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원문과 가장 가깝게 재생산하는 시도이다. 독일의 번역학자 라이스(K. Reis)는 번역물이 원문과 최대한의 동등성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곧 잘된 번역이라고 본다(151). 라이스는 두 단계의 평가 진행을 제안하는데, 첫째 단계는 대상 본문(target text)에서 사용된 언어들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일이고, 두 번째 단계는 원문과 대상 본문 사이에 동등함의 정도(degree)를 세우기 위해 두 본문들의 분석을 근거로 원문과 대상 본문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이스의 모델은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특히 매우 영향력이 있으며, 번역 과정의 번역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라우셔에 의하면, 실제적인 적용에서 라이스의 접근은 ‘최상의 동등성’(optimum equivalence)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어서, 매우 모호하고 모든 본문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라우셔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TQA의 모델은 기능적 접근법이다. 번역의 평가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들은 번역하는 일이 원문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대상 문화(target culture)와 관계되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능’이라는 개념은 대상 독자들의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고, 번역자에 의해 발

전되고 적용되어온 번역 전략들을 일컫는 말이다. 암만(Ammann)이라는 학자에게 있어서 좋은 번역은 대상 독자들이 대상 본문의 개연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암만은 비평가가 먼저 원문의 일관성과 기능뿐 아니라 대상 본문의 일관성 기능을 정하는 평가 진행을 제안한다. 라우셔는 암만의 기능에 대한 정의 역시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라우셔에 따르면, 암만은 번역의 기능을 일관성 있는 독자 해석으로 본다. 장면들과 구조들의 접근 방법에서도 역시 암만은 어떻게 우리가 장면들을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한 장면이 적절한 틀(*framework*)에 의해 주어지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우셔는 평가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라우셔에 따르면 평가의 진행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하는 주체(*the evaluating subject*), 객체(*the object*), 모델 대상 본문(*the model target text*). 평가하는 주체에 관하여 페차커(*Pochhacker*)는 번역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평가될 수 있고 평가하는 사람의 경험과 번역에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라이스는 평가의 객체는 평가하는 사람의 해석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고, 평가하는 사람의 대상 본문에 대한 해석은 평가의 대상을 구성하고 해석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대상 본문에 대한 판단(*judgement*)은 모델 대상 본문, 번역의 이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번역이 일어나는 상황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번역 비평(*translation criticism*)은 평가 과정들을 더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즉, 번역 주체가 끼치는 영향의 단계들을 조사하고, 그러한 단계들에 대한 동의(*agreement*)가 규범적인 판단을 위해 필수 조건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우셔의 논문의 공헌은 번역의 질의 평가(TQA)를 위해 학자들의 접근 방법과 실질적인 평가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좁히기 위해 번역 과정의 복잡한 실재를 이해할 것과 가능한 개념적 도구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에 있다. 그러한 개념적 도구를 통하여 평가의 현상들을 연구하고 규범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연구함에 의해 실질적인 필요들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우셔에 따르면, 번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번역과 평가의 과정들에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대화와, 협동과 일치로 통하여 번역의 우수성 및 그 평가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번역의 과정이 단순히 번역자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복잡한 과정임을 이해할 때, 당연한 방향성이라 하겠다.

2.2. 번역의 질 평가(TQA)를 위한 전문 용어의 개발: 번역의 질 평가 실제의 비교(*Towards a Terminology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Comparison of TQA Practices by L. Brunette*)

두 번째 논문은 효과적인 번역의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 용어가 개발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고자 시도한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실용적 개정(pragmatic revision), 번역의 질 평가(TQA), 번역의 질 감독(quality control)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 절차들(Assessment procedures)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부분은 앞의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논리, 상황, 목적 언어 표준 등 평가 기준(Assessment criteria)에 중점을 둔다.

첫 번째로 평가 절차들(Assessment procedures)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 본문들의 번역을 평가하는데 5개 종류의 평가 절차들이 있다: 실용적 개정, 번역의 질 평가, 감독, 교육적 개정, 그리고 신선한 관찰(때로는 질의 확신[quality assurance]이라고도 불림). 이러한 절차들의 비교는 각각의 구체성과 서로 다른 점들을 명확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저자는 실용적인 교정자들(pragmatic revisors)과 가르치기 위한 교정자(didactic revisor) 사이의 차이점, 가르침을 위한 교정과 번역의 우수성 평가의 차이, 또한 질의 통제(control)와 평가(assessment) 사이의 차이점, 우수성의 확신에 관하여 논하고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 가르침을 위한 개정(Didactic revision) - 전체의 번역된 본문과 원문이, 이미 정의된 방법적, 이론적, 언어적, 본문적, 상황적 기준들로 주의 깊게 비교되는 번역과정의 단계.

* 번역의 질 평가(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 운영적 용어(Management term). 번역된 본문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것, 또는 운영적 목적들 즉, 번역자들의 생산성과 번역들의 우수성을 재는 것. 숫자적인 비율이 할당된다.

* 번역의 질 감독(Quality control) - 운영적 용어. 만들어진 번역물이 요구들, 언어 규정들, 세워진 기준들과 함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함.

* 실용적인 개정(Pragmatic revision) - 번역의 향상을 위해 번역자와의 의논 없이 번역된 본문과 원문을 주의 깊게 비교함.

* 신선한 관찰(Fresh look) - 대상 본문이 현재의 글쓰기 기준들과 요구들에 부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된 문서로 읽기. 이러한 진행에 따라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은 첫 번째 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평가 기준들(Assessment criteria)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가 기준들은 쉽게 이해되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하며 어느 정도 수적으로 제한적이고, 입증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저자는 각 기준들을 논리, 목적, 상황, 언어 규범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영어-프랑스어 번역의 예들을 제공한다. 번역의 우수성 평가자와 실용적인 교정자는 대상 본문의 논리(logic)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 전문가들

은 원문에 근거한 번역을 감정하지 않는다. 번역 작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번역이 의미론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대상 언어 공동체를 위해 효과적인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저자는 논리, 일관성, 결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논리(Logic) - 형식과 내용에 의해 정밀하게 구성된 본문의 질. 논리는 일관성과 결속성에 달려 있다.

* 일관성(Coherence) - 한 개념으로부터 다른 개념으로 이전하는 본문 의미의 계속성.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의 개연성.

* 결속(Cohesion) - 본문의 형식과 내용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들.

점점 많은 숫자의 이론가들과 적용가들은 번역된 본문의 목적을 번역의 우수성을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새이저(Sager)는 번역은 의도된 목적의 적합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많은 다른 학자들은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본문의 목적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논리와 마찬가지로 목적의 기준들은 저자의 의도와 독자에 대한 효과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진다.

* 의도(Intention) - 원문의 저자가 말하고, 설명하고 알리고, 논의하고 추천하고 보여주는 것에 의해 추구되는 것.

* 효과(Effect) - 번역자가 대상 청중(target audience)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대화의 반응적인 측면.

상황(context)은 ‘본문의 환경’ 또는 ‘상황적인 자료들’이라 일컬어지며 정확하게 정의하기에 가장 어려운 기준이다. 이것은 언어, 목적, 논리, 언어 규범을 넘어서는 것이다. 실용적인 본문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번역의 대상 청중들, 저자, 시간, 장소, 사회 언어적 상황, 사회적 배경, 이데올로기적 환경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상황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숙지해야만 한다.

* 상황 - 본문의 생산을 둘러싸고 있는 비언어적 환경들(non-linguistic circumstances). 이러한 환경들은 저자, 시간, 장소의 위치, 번역된 본문의 수명, 본문 타입, 본문을 유통시키는 데 사용되는 매개체, 사회적 상황, 대상 본문의 생산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상황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왜 언어 규범(Language norm)이 번역의 평가 기준에 속하는 것일까? 언어 규범은 전문가들에게 어색한 구문 문법적 실수들, 잘못된 철자들, 구두점의 실수들, 적절하지 못한 전문 용어들을 단순히 언어 실수들로 보지 말고, 일반적 본문들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대화의 성공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

게 한다.

* 언어 규범 - 권위 있는 작품들에 의해 세워진 언어의 규칙들이나 전통들(문법책들, 언어 사전들, 철자 기준들, 스타일 안내서 글쓰기 핸드북 등).

저자는 이러한 전문 용어의 정의를 내리면서 전문 용어는 과정을 통하여 창조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제시된 평가 절차들과 기준들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들은 번역 학자들이 언어를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사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공된 것이다. 이러한 지침들이 실제적인 방법에서 평가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저자는 번역 연구를 위한 공통의 용어들과 메타언어(Metalanguage) 범주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3. 학생 번역들을 평가하기 위한 전자 코퍼스에 기초한 접근(A Corpus-Based Approach to Evaluating Student Translations by L. Bowker)

보우커(L. Bowker)의 연구는 번역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주관적임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번역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좀더 객관적이고 구성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모델로 보우커는 전자 코퍼스의 장점과 효과를 설명하고 코퍼스의 사용이 번역 평가에서 주관적인 요소들을 줄이고, 평가자와 학생들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는 것을 논한다.

이 논문은 4개의 주된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은 좋은 평가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정리하고, 두 번째 장은 평가자들이 이용하는 전통적인 자료들의 한계성들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코퍼스가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세 번째 장은 평가 코퍼스(Evaluation Corpus)의 디자인과 편찬을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은 이 평가 코퍼스의 유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실행되는 한 실험 연구를 소개한다.

첫 번째, 좋은 번역을 창출하기 위해서 번역자는 적어도 원문의 언어에 대한 지식, 대상 언어에 대한 훌륭한 이해, 그리고 주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84). 번역을 훈련시키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번역의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제 영역과 본문 타입들의 대표적인 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장은 평가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자료들에 관하여 논한다. 번역 훈련 교사들은 의존해 왔던 전통적인 자료들은 인쇄된 사전들, 그 주제와 평행되는 문서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직관의 사용 등이다. 많은 번역자들과 평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인쇄된 사전들이다. 그러나 사전들은 공간의 부

족으로 모든 정보들을 풍부하게 담을 수가 없다. 반면에 전자 코퍼스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상당한 수의 개념들과 용어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코퍼스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쓰인 믿을 수 있는 본문들이며, 검색이나 보충, 업데이트 하는 데 인쇄된 사전들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평행 본문들(parallel texts)은 다른 언어들로 쓰인 독립적인 글들이지만 원문과 같은 대화적 기능을 가진 본문들이다. 그러나 평행 본문들은 전자 코퍼스에 비해 찾기에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전자 코퍼스의 분석은 더욱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전자 코퍼스는 전문가들에 의해 쓰인 수만 가지의 단어들과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한 주제에 관하여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쓴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쓰이기도 훨씬 용이하고 편협한 의견에 빠질 염려도 덜하다.

세 번째 장은 평가 코퍼스(Evaluation Corpus)의 디자인과 편찬에 관하여 논의한다. 평가 코퍼스는 하나의 집합체적인 명칭이고, 이것은 다시 질의 코퍼스(Quality Corpus), 양의 코퍼스(Quantity Corpus), 부적절한 코퍼스(Inappropriate Corpus)로 나뉜다. 이것의 각각은 내용과 의도하는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르다. 질 코퍼스의 주요 목적은 번역자 훈련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원문의 개념들과 아이디어들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표준 척도로 기능하는 것이다. 양의 코퍼스는 더 많은 단어들과 특별한 전문 분야의 지식들의 샘플들을 제공하여 번역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선택한 전문 용어, 표현 방식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적절한 코퍼스 역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번역이 어떠한 점에서 부적절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된다.

네 번째 장에서는 평가 코퍼스가 학생들을 도우려는 평가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지 실험하는 연구이다. 5명의 학생들에게 프랑스의 컴퓨터 잡지인 *Informatiques magazine*에서 194개 단어들을 발췌해 영어로 해석하게 하고 6명의 평가자들에게 3명은 전통적인 자료들을 사용하여 평가하게 하고, 나머지 3명은 평가 코퍼스를 사용하여 평가하게 한 실험이다. 결과적으로는 평가 코퍼스를 사용한 평가자들이 학생들의 실수도 가장 많이 지적해 냈고, 피드백에 있어서도 주관적이지 않았으며 어휘의 실수도 전통 자료를 사용한 평가자들보다 더 많이 찾아낸다.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반응 역시도 전자 코퍼스의 평가를 받은 것에 더 긍정적이었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전자 코퍼스의 사용이 번역의 평가에서 주관적인 요소들을 경감시키고, 번역하는 학생들과 평가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자료들을 사용하는 평가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제시 증거들을 학생들에게 보일 수 있으며, 풍부한 자료들과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자 코퍼스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되며, 단지 좀더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연구를 위해서 전자 코퍼스의 가능성 있는 적용들을 더욱 확장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4. 아라비아어로부터 제2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한 작품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비평적인 구조들(Critical Structures in the Evaluation of Translations from Arabic into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by S. Campbell)

이 논문은 영어가 제2의 언어인 사람이 자기 나라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원문의 비평적(critical) 구조들을 잘 파악해 낼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캠벨(S. Cambell)은 이러한 비평적인 구조들이 학생들의 번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캠벨은 영어로 쓰이지 않은 작품을 제2 언어인 영어로 번역할 때(Translation into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RESL), 그것 역시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역설하는데, 제2 언어로 작품을 번역할 때는 특성상 다른 평가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캠벨은 왜 이러한 번역을 위한 평가들이 요구되는지를 다양한 이론적 실질적 관점들과 함께 설명하기 위한 실제 연구로, 9명의 번역 학생들이 아라비아어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때 구절들을 어떻게 생략하고 관계적인 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연구한다. 결과적으로 아라비아어-영어의 번역 과정과 영어를 제2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의 인식 스타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평적인(critical) 구조들이 유용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캠벨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은, 비평적인 구조들을 중심으로 한 자료들이 아라비아어를 제2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횡단 절(cross-clause) 진행이나 인식의 스타일(cognitive style) 또는 인식 있는 배열에 관한 정보도 두세 개의 구조들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제2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 제1 언어로 번역된 작품과는 다른 기준들로 평가되어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캠벨은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번역자들과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에 있어서 번역 교육자들의 진정한 필요에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진행될 것을 추천한다.

2.5. 초보자들의 재표현과 창조성: 긍정적인 접근(Evaluating Beginners' Re-expression and Creativity: A Positive Approach. by G. L. Bastin)

번역은 이해(comprehension), 개념화(conceptualization), 재표현(re-expression)으로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 진행 단계로 설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론적 교육적 연구들은 이해와 개념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 즉 재표현을 위한 이론적 기본이 정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번역에 있어서 재표현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둔다.

자기의 사고를 표현하고 쓴다는 것은 언어의 기술적인 측면, 문법, 어문, 철자의 지식, 인식의 능력, 일관성, 결속, 상호텍스트성 등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자신의 사고를 쓰거나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없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하는 의무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이라 부를 수 없고 '재표현'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이것은 번역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원문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옮기려는 자세를 막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해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상 본문의 목적을 아는 것은 재표현의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표현의 전략은 문자적인 해석에서 풀어쓰기(periphrasis), 더 나아가 재창조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잘못된 번역들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전략은 문법, 구체적인 철자 규칙들, 작문의 관례, 사전적 보충들을 통해서 대상 언어에 대한 학생의 지식을 높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학생들에게 원문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도구들에 대한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문의 단어가 대상 언어 안에서 그 의도된 의미를 충분히 표현해내지 못할 때, 풀어쓰기(periphrasis)는 기능적으로 재표현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창조적인 번역자는 원문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독자들의 일반적 상식을 고려하면서, 원저자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으나 원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다.

번역 작품은 기능적 본문을 생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창조적으로 완성되어야만 한다. 창조성은 문자 중심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그러한 문자 중심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창조성을 개발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저자는 학생들의 창조성 개발을 위해 학생들이 얼마만큼 자유로이 개념들을 재표현 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의 창조성을 자극하기 위

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한 마음 비우기, 다양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 자신의 창조성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6. 표준화의 두 가지 측면 – 문학의 대화에서 지역주의의 번역에 관하여(The Two Faces of Standardization: On the Translation of Regionalism in Literary Dialogue. by R. Leppihalme).

문학에서 방언의 사용은 언어의 풍부함이나 문학의 개성을 창조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방언이나 사회방언(sociolect) 같은 비표준 언어들만 번역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언어들만 대상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면 원문의 독특한 성격은 번역에서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역적 방언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한 원문을 번역자가 어떠한 전략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일반적인 전략은 방언을 번역에 있어서 표준화(standardization)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원문의 문학성을 떨어뜨리는 것일까? 이 연구를 위해 저자는 파탈로(K. Paatalo)의 *Koillismaa*(1960)이 하눌라(R. Hannula)에 의해 번역된 *Our Daily Bread* (1990)를 예로 삼는다.

파탈로(1919-)의 초기 삶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핀란드의 북동쪽 시골 지역에서 자라났으며 그의 작품들 역시 농부들, 가난한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책들은 핀란드에서 널리 읽히고 있으며 그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1960년에 쓰인 그의 작품 *Koillismaa*(북동쪽)은 30년 후에 *Our Daily Bread*란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되었다. 별목꾼과 농부들의 가난한 삶을 반영하고 있는 이 소설은 실제적인 전승에서 쓰였고 삶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소설에 나타난 핀란드 북동쪽 지방의 방언과 대화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이 소설에 나타난 지방적 성향(regionalism)은 소설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regionalism)란 용어는 크게 표준말로부터 구분되어 방언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와 그 성격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주의 성격이 강한 소설과 그 번역의 본문을 비교해 볼 때 번역문들은 대부분 표준 영어로 쓰고, 문학작품의 언어적 특성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원문에서 사용되는 지역주의의 주된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창조시키고, 개별화된 등장인물들을 만들며, 유머를 덧붙이는 것이었다. 표준화를 시키는 번역의 과정에서 이러한 성격들은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번역에 대한 평가는 이것을 읽는 대상 독자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Our Daily Bread*를 읽고 나서 많은 독자들은 번역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냈다. 핀란드에 대해 별 지식이 없었던 독자들은 핀란드인들의 ‘타자성’(otherness)에 관심을 두었고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책의 내용과 메시지들이 잘 전달되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원문의 지역적인 요소들이 번역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따라서 원문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주의의 기능들은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핀란드의 지역적 실상에 대해 북미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번역의 의도된 바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한 약화되거나 잃어버린 요소들—사회문화적 상황, 유머 등장인물의 개별화—역시 완전히 잃어버려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독자들의 읽는 경험에서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런 요소들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지역적 요소가 강한 원문을 그 원래의 문학성을 보존하면서 번역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마친다.

2.7. 프랑스에서의 번역 질의 평가와 문학적 번역(Quality Assessment and Literary Translation in France. by I. Vanderschelden)

이 논문은 프랑스의 문학적 통합 시스템에서 문학적 번역의 현 위치를 연구한다. 출판사들, 문학적 번역자들, 책 비평가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프랑스에서 번역된 문학의 영향을 연구하고, 문학 번역자와 번역된 문학의 가시성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프랑스에서 출판된 번역물의 우수성 평가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고, 번역된 문학작품이 평가될 때 적용된 기준점들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발전된 논의들은 주로 인터뷰를 통한 프랑스 출판사들과 문학적 번역자들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디어에서 번역된 작품들에 대한 서평에 근거한 것이다.

번역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문학의 상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외국 문학들의 인기가 많으며 프랑스 시장에서 번역된 문학작품들의 경쟁력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질을 가늠하는 분별력 있는 형식이 없음을 저자는 문제로 제기한다. 즉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출판인과 번역자, 책 서평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번역의 질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프랑스는 번역된 외국문학을 평가할 때, 본문의 질(quality)들로 평가되기보다는 외국작품들 자체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1993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의 소설 *Paradis*(1997)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는데, 그것의 서평에서는 주

로 저자에 관한 것, 책의 주제, 또는 프랑스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부분의 내용에 관심이 있지, 번역의 질 자체를 평가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번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로 형식적인 이슈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서평에서는 더 고려되어야 하는 다른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1990년대 프랑스에서 문학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실제들의 분석과 함께 번역과 번역자의 비가시성을 확고히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이 바로 프랑스의 상황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자는 종종 무시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며, 번역에 대한 평가 역시 대상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전제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글은 프랑스에서 외국문학의 위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된다 할지라도 번역 작품의 우수성과 번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프랑스 번역문학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중을 올리고 있다.

2.8. 신문들 안에서의 번역(Translation in the Broadsheets. by P. Fawcett)

영어 문서로 번역되는 문학이 하락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출판되는 신문들과 서평 저널은 서평자들을 계속 초청하여 번역 문학을 서평하도록 하고 번역에 대한 넓은 문제들을 논의한다. 이 연구는 번역 비평이 진행되는 암묵적인 틀을 정의하는 기준점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로, 그와 같은 서평들의 샘플을 연구하고, 어떤 것이 우선되는 번역 전략인지 연구한다.

저자는 번역 비평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요인들은 본문의 명료함(transparency), 원문 중심의 양식으로 번역된 것을 매우 싫어함, 비평을 되살리기 위한 증거를 중단함, 비평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분석도 허락하지 않는 경향, 정의되지 않은 권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비평, 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기준, 독자에게 원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많이 소개하지 않음, 부정적인 비평에 있어서 매우 솔직한 자세와 같은 것으로 열거한다. 종종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 판단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영국의 신문이나 저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평들은 잘 설명되지 않는 권위와 객관적인 평가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책임성이 없는 기관의 양태를 보여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번역 작품은 반드시 서평과 비평가들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2.9. 고전 작품 재방문하기(Revisiting the Classics), 아일랜드 시와 함께 겨울 지내기: 영어 번역에서의 연맹과 자서문학(Wintering

Out with Irish Poetry: Affiliation and Autobiography in English Translation)

1972년 헨네이(S. Heaney)는 12세기 익명의 작가에 의해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Buile Suibhne*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북아일랜드의 왕 스위니(Suibhne)는 한 기독교인의 저주의 결과로 전쟁에서 큰 충격을 받고 미치게 되었으며 도망쳤다. 헨네이는 1972년에 그의 수집 *Wintering Out*을 마쳤고, 그 이후로 시인과 작가의 역할을 한다. 1972년 1월 30일 일요일 대량학살 사건이후, 헨네이는 북아일랜드로부터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이주하고 번역자로서의 일에 힘을 쏟는다. 1983년에는 시들을 수정하고 *Sweeney Astray*라는 제목 하에 *Field Day*를 번역하고 출판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저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들을 열거한다.

첫 번째, *Sweeney Astray*의 존재자체에 맞추어 실용적인 평가를 하는 견해이다. 어떤 중세학자나 아일랜드 문학에 대한 교사도 헨네이가 그의 관심을 *Buile Suibhne*에 두고 번역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평가는 *Sweeney Astray*를 역사적인 문서로 보고 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먼저 헨네이에 관하여 많이 말하고 있고, 시인으로서 그 자신을 세우는 방법에 관하여 말하여 준다. 그의 번역은 헨네이의 민족성에 대한 질문과 힘겨운 씨름을 한 표시이다.

세 번째로, 저자는 *Sweeney Astray*와 같은 번역 작품을 원문의 대표성에 의해서 평가하기를 제시한다. *Buile Suibhne*는 다른 모든 아일랜드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주된 인물들에 의해 말해지는 삽입 시들과 산문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본문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고, 왜 모이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이해는 무엇인지, 어떻게 그 시대의 문화적 생산물을 반영하는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짧게 말하면, 본문의 문화적 기능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Sweeney Astray*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거의 침묵을 지킨다. 헨네이의 번역에서 가장 힘든 것은 원문과 관련된 방향성의 부족이며 원문을 관통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번째 평가의 수준은 번역자에 의해서 선택된 언어들과 원문의 언어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헨네이의 번역 전략들을 살펴보면,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고려하여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Sweeney Astray*는 대상 언어의 시스템에 완전히 맞추어서 번역된 것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초기 아일랜드 문학과 문화에 대한 통찰력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2.10. 책 서평들(Book Reviews)

대부분의 모든 저널이 그러하듯이 *The Translator*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 번역된 책 또는 번역비평학과 관련된 7권의 책을 서평하면서, 이러한 번역 문학이 앞에서 논의된 번역의 평가 기준에 실제로 얼마나 잘 적용되어 번역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한다. 각각의 책을 비평가들이 어떻게 서평을 하고 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평자가 비평하고 있는 첫 번째 책은 버만(A. Berman)의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 (1995)이다. 서평자에 따르면, 버만은 비평(criticism), 주석(commentary), 번역(translation)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정리하고, 번역이 비평보다 본문의 주석서의 전통적인 실제들에 더 가깝다고 지적한다. 버만의 책은 2장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첫 번째 장은 넓은 이론적, 방법론적인 설명에 치중되고 두 번째 장은 Donne's 비가, 'Going to Bed'의 다양한 번역들의 실제적인 비평을 다룬다. 그의 프로젝트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교육적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비평의 한 방법으로, 버만이 제시하는 것은 구체성을 주제화하고, 언어, 본문, 번역의 명백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그것의 방법론을 생산하는 것이다. (시에버드 [R. Sieburth] 평)

두 번째 책은 일본 작가가 쓴 요시모토(N. Yoshimoto)의 *Kitchen*을 박커스(M. Backus)가 영어로 번역한 소설이다. 박커스는 서양인들이 일본 소설에 의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뒤엎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번역은 그 질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좋은 번역은 원문의 성향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박커스가 대화 소통적이고 특색적인 번역을 한 것에 관하여서는 격하시키고 싶지 않지만, 아직 번역이 원문 작가의 고유어를 많이 잃지 않는 틀 안에서 더욱 의미 있게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터니[A. Turney] 평)

세 번째는 *Quartet of Joy*라는 마타(M. A. Matar)에 의한 아랍어 시가 영어로 번역된 작품이다. *Quartet of Joy*는 그 자체가 모호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사랑 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성경의 아가서나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상징적이고 모호한 내용과 함께 유대-기독교 성경과 코란의 내용들이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번역자의 그 작품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그 작업을 테스트하는 일이고, 두 번째 기준은 제안된 학계의 적절성과 번역자들이 그것을 성공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며, 세 번째는 번역의 우수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디록스[P. Theroux] 평)

네 번째 책은 모리슨(T. Morrison)의 *Paradise*가 궈리오뉘비(J. Guiloineaby)

에 의해 프랑스어로 번역된 작품이다(1998년). 이 책은 번역되던 해 6월쯤에는 이미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프랑스에서의 인기는 모리슨의 소설적 재능에 대한 인식과 그녀의 인종적, 계급적, 성(gender)의 대립 관계를 묘사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된 본문을 읽어보면, 프랑스 출판인이 책의 명성에 따라 과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이 서평은 번역물의 출판이 유명한 작가, 책들에만 의존하고, 번역의 과정이나 평가에는 소홀해하는 출판 시스템의 결과들을 지적한다. *Paradise*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은 아프리카-아메리칸 작가들에 대한 감상보다는 문학상 받은 것에 대한 존경을 보여 주고 있고 문학의 글로벌 시장과 상업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번역 과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가장 첫 번째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니[F. M. Kenney] 평)

다섯 번째 서평은 시스네로스(S. Cisneros)의 소설 *Woman Hollering Creek and Other Stories*이 발렌주엘라(L. Valenzuela)에 의해 멕시코 스페인어로 번역된 작품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인 ‘Mericans’에서 시스네로스는 경계선상에 사는 사람들의 동적인 삶의 주제를 발전시킨다. ‘Merican’이라는 단어는 Mexican + American의 합성어적 신조어로, 멕시코와 북미의 경계선상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일컫는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중의 하나인 미카엘라(Micaela)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다. 그녀는 혼종적이며 (hybrid), 메스티자(mestiza)이고, 경제적 삶의 체화인 것이다. 그녀는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고 뿌리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시스네로스의 작품은 혼종적인 경험을 그녀의 독자들에게 다양성의 상황에서 읽도록 대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을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혼종적 특징을 잘 반영하여 재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기[P. G. Y. Nogue] 평)

여섯 번째 서평하고 있는 책은 독일의 라이스(K. Reis)가 지은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가 로즈(E. F. Rhodes)에 의해 번역된 작품이다. 번역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영어책들의 저자는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어처럼 중요한 언어들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스의 독창성 있는 책이 30년 만에 영어로 번역되어서 읽힐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 라이스는 번역 비평을 위한 네 가지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본문 중심의 번역은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그 본문의 타입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독자들을 위한 목적 중심의 번역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3) 모든 번역들은 해석과 번역자

의 주관적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어떤 평가도 이러한 요소들을 허락하며 또한 해석에 있어서 비평가의 주체성 역시 허락되어야 한다. 4) 번역 비평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주관적인 요소들도 설명되어야 한다. (세이저[J. C. Sager] 평)

마지막 서평은 워딩톤(C. Waddington)의 *A Comparative Study of Different General Translation Assessment Methods*이며 이것은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었다. 워딩톤의 책이 번역학의 중요한 연구 자료인 까닭은 번역을 훈련시키는 교사들의 학생들 평가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은 저자의 전통적인 번역 평가의 기준들, 즉 언어의 실수들이나 의미의 잘못된 전달 등에 기초한 기준들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함을 설명한다. 두 번째 장은 워딩톤이 64명의 학부생들과 함께 실험한 연구를 설명하는데, 이 실험의 목적은 제2 언어로 번역을 할 때에 번역의 우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가설들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워딩톤의 공헌은 번역 훈련 교사들로 하여금 A/E 타입의 점수들을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수들의 타입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가르침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서평자는 이 작품이 번역의 질과 평가와 관련된 개념들과 이론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논평한다. (무에스[L. Muies] 평)

3. 평가 및 결론

다른 나라의 언어와 사상과 문화가 담겨져 있는 글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생산해 내놓는 것과 같은 창조적인 예술 작업이다. 우리는 많은 번역 작품을 읽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번역자의 자질, 번역의 과정, 번역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소개한 저널, *The Translator: Evaluation and Translation* 은 번역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번역의 질, 번역자, 번역의 가치 및 평가, 번역 출판사와 시장의 동향, 번역 교사들의 교육 방법과 학생들을 위한 평가 기준 등 번역에 관한 주요한 사안들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이 저널은 모두 9편의 번역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논문과 7권의 책을 서평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및 시각과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번역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집된 순서의 어떤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같은 주제가 각 논문에서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보였다. 논문의 저자들도 주로 유럽과 영어

권이고, 그들의 상황을 담은 글들이기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번역 문학의 상황을 담을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널의 논문들은 번역의 질을 높이고 번역의 평가 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헌을 하고 있다.

라우셔에 의한 첫 번째 논문은 번역의 질의 평가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모델들이 실제적 적용에서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번역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실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번역자들이 서로 대화 가운데 협력하고 동의를 만들어야 번역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논문에서 브뤼네트는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들이 도구화되고 정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평가라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브뤼네트의 개념 정의는 번역자, 비평가, 출판사, 독자들 간에 명확한 대화의 소통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우커는 번역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코퍼스를 사용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음을 연구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 이것은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현대적 교육방식이며,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번역의 질은 더욱 높아지며 번역자들의 실력 역시 향상될 것이다. 캠벨의 논문은 자국의 논문을 타국의 언어로 역 번역한 작품을 평가할 때는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번역하는 작업은 원문의 재표현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바스틴은 그의 논문에서 번역 초보자들의 재표현 방법과 창조성을 길러주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접근방법이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보우커의 논문과 함께 바스틴의 논문은 전문적인 훌륭한 번역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의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을 번역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방언이나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을 번역할 때는 대상언어의 표준화를 사용하여 번역하는데, 리트바는 그러한 표준화적 번역이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상 독자들은 원문이 지역적 요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벨과 피터의 논문은 각각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번역 문학의 실태와 그 질의 평가 수준을 설명한다. 외국 번역 문학이 흥행하는 프랑스에서도 번역자의 존재나 번역 작품의 질에 관해서는 그다지 높은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사벨은 상업중심주의의 번역 문학에 대한 경고를 울리며, 피터는 영국의 신문이나 서평저널을 통한 번역 문학에 대한 논평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준은 아직 매우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아일랜드 작가 헨나이

의 *Sweeney Astray*에 대한 마리아의 서평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책을 비평해야 되는가에 관해 논한다.

이러한 논문들에서 논의한 번역의 질, 가치, 평가의 중요성 및 전략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약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역사와 문화의 변천을 담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인 문서를 현대인을 위한 현대어로, 각기 다른 문화와 민족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성서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전문적이고 실력이 잘 갖추어진 번역자들을 교육시키고 배출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전자 코퍼스와 같은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번역한 성서를 평가하는 것 역시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정으로 원문과의 비교, 지역적인 요소가 표준화 되어 번역된 것에 대한 고찰, 재표현의 적절성, 독자들의 반응 등을 철저히 연구하고, 번역자들끼리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동과 서로간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성서라는 문학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달하는 경전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여, 여기에서 논의된 번역의 방법, 전략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 평가 내용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Keywords)

번역의 질, 번역의 가치, 번역의 평가, 번역 문학, 번역 훈련.

Quality of Translation, Value of Translation, Evaluation of Translation, Foreign Literature, Translation Training.

<Abstract>

**Book Review - *The Translator Stud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pecial Issue: Evaluation and Translation, 6:2***

(C. Maier, 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0)

Dr. Seong-Hee Kim
(Ewha Womans University)

Translation is like an art of creating the work with scrutiny and exquisiteness. The academy of translation studies has discussed the issue of value and quality for a long time while recognizing its importance. However, this kind of discussion needs to be more specialized with technology and business for today. *The Translator: Evaluation and Translation*, edited by C. Maier, is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need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literary translation. Maier states in the introduction that conventional translation quality has focused on the self-training of translator and now it is time to develop translation studies for actual practice and application. He also explains the critical concepts such as quality, assessment, and value, introducing their relational sources for to help our understanding of this volume.

This journal consists of nine articles with different subjects and seven book reviews. The first article by Lauscher states about a dist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translation, and tries to bridge it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ranslation procedure. The second one by Brunette emphasizes on the demand of conceptualization of translational tools in order to make its high quality. Because evaluation is very much subjective in itself, Brunette's terminological definitions provide the clear ways of communication for translators, reviewers, publishers, and readers. Bowker's article illustrates a usefulness of corpus for evaluating student translations compared with other conventional resources such as dictionaries, parallel texts, advice of experts, and intuition. The assesment using corpora can offer objective and constructive feedback to students, and it is more useful in order to improve the students' ability for translation. Campbell's article emphasizes on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criteria in evaluating literary translation by the second language and explains the diverse contexts when translation occurs.

Translation is a "re-expression" in terms of Bastin's argument. He suggests several guidelines for beginners to have creativity and methods of re-expression,

and supports a positive approach in assessment. It is hard to translate the work which contains the elements of regionalism. Most translators' strategy is to use standardization, which refers to replacement of the regionalism of the source text with more common target language elements. In that case,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the original text is weakened or lost. However, Leppihalme insists that the standardization does not lose all the messages that the author wants to deliver, and target audience get them enough through their experience of reading.

Vanderschelden and Fawcett's articles explain about the current translation circumstances in France and England. Foreign literature is popular in Franc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Europe or USA. However, the French are indifferent to the existence of translators and quality of translation. Rather, they tend to be much more interested in the popularity of the source text or the author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French market. Fawcett also points out the subjective level of evaluation in the broadsheets and reviews journals in England. Lastly, the review of an Irish writer, Seamus Heaney's *Sweeney Astray* argues how translation is produced in relation to the specific political situation like the colonization of Ireland by England and suggests some criteria for the translation criticism. Seven book reviews at the end provide insight to how the presented theories and suggestions of quality, value, and assessment of translation are well applied to the recent translation literature.

The collection of these articles shows diverse views of quality, value, and assessment, reflecting on the situations of translation in most European countries and USA.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coherence in terms of order, and some subjects are often overlapped in a few articles. Most of the authors are from English speaking culture, consequently, there is a limitation that lacks the situation of Asia, Africa, and Russia, etc. Nevertheless, this journal contribut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nslation and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evaluation. In addition, it makes us to mull over the issue of translating the Bible. The Bible has not only been written for about 1500 years along with numerous changes of histories and cultures, but also written in classical Hebrew and Greek. It is never easy to translate it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for today.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the Bible as a literature and God's word, we have to devise and add up more ways of translation method, strategy, criteria, assessment and reader's response beyond the arguments presented here.